

하나원큐 K LEAGUE 1

THE UNITED

OFFICIAL MAGAZINE
2023.07.02 / 제5호

2023 SEASON

2023시즌 경기일정
2023시즌 선수명단

vs GANGWON PREVIEW

홀승권 절실한 인천,
어수선한 강원 상대로 승점 사냥 나선다

vs DAEJEON PREVIEW

앞선 만남에서 우세했던 인천, 대전 상대 시즌 무패 노린다

YOUTH PLAYER

우리가 10년 뒤 인천을 책임집니다
인천 광성중 1학년 3인방

IUFC REPORTER REPORT

인천우나이티드 창단 20주년
역대 캐치프레이즈와 홈 유니폼

BLUEMAN INTERVIEW

'인천 수비의 새 믿을맨' 권한진,
"후반전에는 리그 최소 실점이 목표"

ROOKIE INTERVIEW

세계무대 경험하고 돌아온 박현빈,
이제 **표검**의 피치에 설 시간





INCHEON UNITED 2023 SQUAD



조성환 감독
HEAD COACH



변재섭 코치
COACH



박용호 코치
COACH



김재성 코치
COACH



김광석 코치
COACH



김이섭 GK코치
GK COACH



오지우 피지컬코치
PHYSICAL COACH



김한운 스카우트
SCOUT



황근우 선수트레이너
ATHLETIC TRAINER



피민혁 선수트레이너
ATHLETIC TRAINER



진도형 선수트레이너
ATHLETIC TRAINER



최재혁 물리치료사
PHYSICAL THERAPIST



김민석 팀매니저/통역
TEAM MANAGER



조용희 장비담당관
KIT MANAG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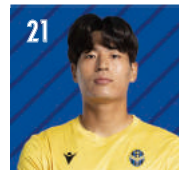
육태훈 전력분석관
PERFORMANCE ANALYST



박준성 통역
INTERPRE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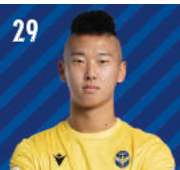
김동현
GOAL KEEPER



이태희
GOAL KEEPER



민성준
GOAL KEE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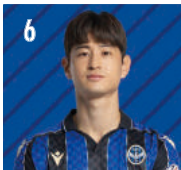
김유성
GOAL KEEPER



김연수
DEFENDER



오반석
DEFENDER



문지환
DEFENDER



강윤구
DEFENDER



정동윤
DEFENDER



임형진
DEFENDER



김준엽
DEFENDER



델브리지
DEFENDER



김건희
DEFENDER



김동민
DEFEN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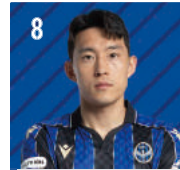
권한진
DEFEN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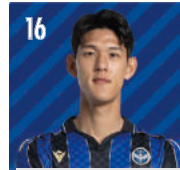
이명주
MIDFIELDER



김도혁
MIDFIELDER



신진호
MIDFIELDER



이동수
MIDFIELDER



여름
MIDFIELDER



박현빈
MIDFIELDER



민경현
MIDFIELDER



최우진
MIDFIELDER



김현서
MIDFIEL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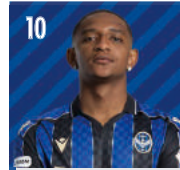
박진홍
MIDFIEL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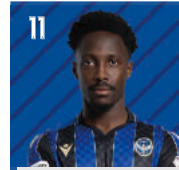
음포쿠
MIDFIELDER



김세훈
MIDFIEL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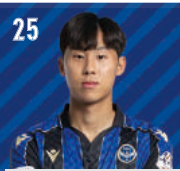
에르난데스
FORWARD



제르소
FORWARD



지언학
FORWARD



김민석
FORWARD



김보섭
FORW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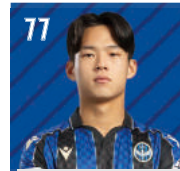
하동선
FORW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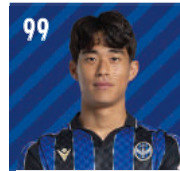
홍시후
FORWARD



김대중
FORWARD



박승호
FORWARD



천성훈
FORWARD



INCHEON UNITED MATCH SCHEDULE

01R	02월 25일(토) 20:30	2	서울 : 인천	1	서울월드컵
02R	03월 04일(토) 14:00	3	인천 : 대전	3	인천축구전용
03R	03월 12일(일) 16:30	1	인천 : 제주	0	인천축구전용
04R	03월 18일(토) 14:00	5	광주 : 인천	0	광주축구전용
05R	04월 01일(토) 16:30	0	인천 : 대구	0	인천축구전용
06R	04월 09일(일) 16:30	2	전북 : 인천	0	전주월드컵
07R	04월 16일(일) 14:00	0	강원 : 인천	2	춘천송암
08R	04월 22일(토) 19:00	2	인천 : 수원FC	2	인천축구전용
09R	04월 25일(화) 19:30	0	인천 : 울산	1	인천축구전용
10R	04월 30일(일) 15:00	0	포항 : 인천	2	포항스틸야드
11R	05월 05일(금) 16:30	0	인천 : 수원	1	인천축구전용
12R	05월 10일(수) 19:30	2	제주 : 인천	0	제주월드컵
13R	05월 14일(일) 16:30	0	인천 : 전북	0	인천축구전용
14R	05월 20일(토) 16:30	1	인천 : 광주	1	인천축구전용
FA컵	05월 24일(수) 19:00	3	인천 : 경남	0	인천축구전용
15R	05월 27일(토) 19:00	2	대구 : 인천	2	DGB대구은행파크
16R	06월 04일(일) 16:30	1	대전 : 인천	3	대전월드컵
17R	06월 07일(수) 19:30	1	인천 : 서울	1	인천축구전용
18R	06월 11일(일) 19:00	0	수원 : 인천	0	수원월드컵
19R	06월 25일(일) 16:30	0	인천 : 포항	1	인천축구전용
FA컵	06월 28일(수) 19:00		인천 : 수원		인천축구전용
20R	07월 02일(일) 20:00		인천 : 강원		인천축구전용
21R	07월 08일(토) 19:00		수원FC : 인천		수원종합
22R	07월 12일(수) 19:00		울산 : 인천		울산문수
23R	07월 16일(일) 20:00		인천 : 대전		인천축구전용
24R	07월 22일(토) 19:30		서울 : 인천		서울월드컵
25R	08월 06일(일) 19:00		전북 : 인천		전주월드컵
26R	08월 13일(일) 19:30		인천 : 대구		인천축구전용
27R	08월 18일(금) 19:30		인천 : 광주		인천축구전용
28R	08월 25일(금) 19:00		수원FC : 인천		수원종합
29R	09월 02일(토) 19:00		인천 : 포항		인천축구전용
30R	09월 16일(토) 14:00		인천 : 제주		인천축구전용
31R	09월 24일(일) 16:30		강원 : 인천		강릉종합
32R	09월 30일(토) 19:00		인천 : 수원		인천축구전용
33R	10월 08일(일) 15:00		울산 : 인천		울산문수

- 상기 경기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AFC 챔피언스리그와 FA컵 일정은 추후 발표 될 예정입니다.
- 변경 된 경기 일정과 경기 관련 소식은 인천유나이티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vs GANGWON PREVIEW

홈 승리 절실한 인천, 어수선한 강원 상대로 승점 사냥 나선다

글 = 손지호 UTD기자 (thswlgh50@qjou.ac.kr)

인천의 7월 첫 홈경기 상대는 강원FC이다. 6월 25일 19라운드 포항과의 홈 경기 이후 연달아 이어지는 경기다. 인천은 이번 시즌 강원 원정에서 김준엽, 에르난데스의 연속골로 승리를 거둔 바 있다. 인천과 강원 모두 하위권에서 고전하고 있지만 두 팀의 분위기는 둘 다 저조하다. 두 팀 모두 경기 내용에 비해 승리가 없고 여전히 해답을 못 찾고 있다.

강원은 이번 시즌 고난 길을 계속 걷고 있다. 리그에서 9경기째 승리가 없다. 지난 4월 전북을 잡아낸 게 마지막 승리였다. 그 결과 리그 11위로 강등권에서 허덕이고 있다. 이에 강원은 최용수 감독을 경질시키고 U리그에서 지도자 생활을 보낸 윤정환 감독을 새로 선임하며 분위기 반전에 나섰다. 이에 코칭 스태프와 주장단도 전면 개편하며 반동을 노리고 있다.

강원은 이번 여름 이적시장이 열리자마자 선수단 보강에 나섰다. 울산에서 해의 경험이 있는 베테랑 미드필더 윤일록을 임대 영입하며 공격진을 강화했다. 부상으로 빠졌던 주포 이정협이 복귀로 부족한 결정력을 채웠고 이정협은 지난 19라운드 수원FC전에서 골까지 성공시켰다. 여기에 U-20 월드컵에서 활약한 신인 이승원의 가세로 중원에 활기를 더했다.

하지만 여전히 주 공격 루트였던 김대원, 양현준의 측면 파괴력과 결정력이 다소 부진하다. 강원은 현재 12골로 리그 12개 팀 중 득점수가 가장 낮다. 그 중 김대원과 양현준은 각각 단 1골씩만 만들어 내며 제 역할을 못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6월 한 달 동안 치른 4경기에서 모두 골을 만들어냈을 정도로 득점력이 점차 오르고 있다. 외국인 용병인 갈레고와 두 선수의 호흡도 갈수록 나아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인천과 강원의 통산 전적은 14승 6무 15패로 인천이 통산전적에선 다소 밀리지만 강원과의 최근 5경기에서는 3승 1무 1패로 매우 우세한 성적을 거뒀다. 인천이 순위를 회복하기 위해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승점을 쌓아야 한다. 그렇기에 팀 내부적으로 어수선한 상황인 강원을 상대로 인천은 홈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vs DAEJEON PREVIEW

앞선 만남에서 우세했던 인천, 대전 상대 시즌 무패 노린다

글 = 손지호 UTD기자 (thswlgh50@qjou.ac.kr)

인천의 7월 두 번째 홈경기 상대는 대전하나시티즌이다. 이번 시즌 두 번의 맞대결에서 1승 1무의 우세한 성적을 거뒀다. 지난 3월에 치른 홈 개막전에서 3골씩 주고받으며 무승부에 그쳤고 6월에 치른 1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3-1로 승리한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만난다.

대전은 이번 시즌 돌풍의 주역이다. K리그 2에서 승격해 시즌 초반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리그 3위까지 올랐었다. 하지만 최근 흐름은 초반과 다르다. 5월, 6월 두 달 동안 9경기에서 단 2승만을 챙겼다. 3월, 4월에만 5승을 챙긴 대전의 초반 돌풍과는 확연히 달라졌다. 최근 두 경기에서 모두 무승부를 거두긴 했지만 선제 실점 후 후반 막판 극장 골로 간신히 패배를 면했다. 이런 분위기는 리그 순위도 6위까지 떨어지게 만들었다.

대전이 주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잦은 실점 때문이다. 팀 득점은 막강한 공격진을 앞세워 전체 3위지만 팀 실점은 뒤에서 2위다. 골을 많이 넣는 만큼 실점도 많다. 지난 5월에 치른 광주 원정 이후 8경기째 클린시트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인천과 총 실점이 무려 7골이나 차이가 난다. 그만큼 수비력에 빨간 불이 켜졌다. 인천은 이번 시즌 대전을 상대로 2경기 동안 6골을 몰아치며 리그에서 대전을 상대로 가장 많은 골을 만들어 낸 팀이기도 하다.

하지만 대전은 여전히 스쿼드가 매섭다. 외국인 용병인 레안드로, 티아고, 안톤의 활약이 매섭다. 중원에도 주세종, 이진현이 튼튼하게 전방 라인을 보조하고 있다. 특히, 대전은 이진현과 주세종의 정확한 전방 패스와 레안드로의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역습이 날카롭다. 지난 대전 원정에서 인천

이 대전의 공격을 수비할 때 많이 고전한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티아고의 제공권 능력도 무시할 수 없다. 최근 폼이 좋지 않다는 평이 있지만 세트피스 상황에서 티아고는 위협적이다. 세트피스에서 실점이 많았던 인천으로선 티아고를 예의주시해야 한다.

인천과 대전의 통산 전적은 22승 7무 5패로 통산 전적에서 매우 우세하다. 상대 전적으로 승리를 점치기에는 성급하지만 상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지난 대전 원정에서 보여준 바 있다. 지난 6월 맞대결에서 좋은 경기력으로 승리한 좋은 기억을 되살려야 한다. 인천이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통해 3번의 만남에서 모두 승점을 따낼 수 있을지 기대해 보자.





인천유나이티드 창단 20주년, 역대 캐치프레이즈와 홈 유니폼

다가오는 8월 1일은 인천유나이티드의 20번째 창단 기념일이다. UTD기재단이 인천유나이티드 창단 20주년을 기념해 그동안 인천이 사용했던 캐치프레이즈와 유니폼을 돌아봤다.



우리가 10년 뒤 인천을 책임집니다 인천 광성중 1학년 3인방

글 = 주대은 UTD기자 (ju_dann@naver.com)

초등학교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축구선수가 가장 큰 변화를 겪는 시기는 언제일까? 축구의 전체적인 틀 자체가 가장 크게 변할 때는 바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는 시점이다. 우선 8인제 축구에서 11인제로 바뀐다. 또한 경기장의 크기는 물론 골대와 공도 커진다. 전반, 후반 각각 25분이었던 경기 시간은 40분으로 늘어난다.

크게 변화하는 만큼 갓 중학교에 진학한 1학년들은 적응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선수들도 있다. 이런 선수들은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하면서 팀에서 중용 받고, 점차 에이스로 성장할 수 있다. 인천 광성중 1학년 3인방이 그렇다. 이번에 소개할 선수들은 광성중 강민제, 김연우, 아르카디다.

인천유나이티드 U-15 광성중 이성규 감독은 세 선수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많은 선수를 지도했다. 강민제, 김연우, 아르카디, 이 세 선수는 이미 중학교 1학년 수준을 뛰어넘는다. 신체가 완성된다면 더욱 뛰어난 선수가 될 것이다. 많이 기대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강민제는 인천 U-12에서 골장 인천 U-15로 승급한 선수다. 주로 공격수를 맡는 강민제는 인천 U-12 소속일 당시 K리그 유스 챔피언십에서 득

점왕을 거머쥐었던 경력이 있다. 강민제는 1대1 돌파 능력과 동료를 이용하는 플레이가 장점이다. 강민제는 “롤모델은 에르난데스다. 내 스타일과 비슷하다. 얼른 커서 인천에서 뛰고, PL에 진출하고 싶다”라고 목표를 이야기했다.

김연우는 돌파가 가장 큰 장점인 선수다. 특히 속도를 활용한 돌파에 능숙하다. 아직 체격이 다소 왜소하지만 그럼에도 수비수 한둘은 가볍게 벗겨낸다. 그만큼 수비수를 흔드는 능력이 좋다. 단점인 체격만 보완된다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 김연우는 “제르소가 롤모델이다. 빠르고 잘생겨서 좋아한다. 목표는 인천에서 데뷔하고 성장해서 PL에서 뛰는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아르카디는 러시아 출신의 장신 공격수다. 초등학교생 당시 이미 180cm를 넘는 키는 현재 185cm까지 자랐다. 지금도 하루가 다르게 키가 크고 있다. 아르카디는 신장에서 나오는 제공권과 킥 능력은 물론 좋은 발기술까지 가지고 있다.아르카디는 지난 5월 대한민국 국적 취득에 성공하며 인천 선수로 뿔 날을 고대하고 있다. 아르카디는 “롤모델은 델브리지와 홀란드다. 물론 델브리지는 수비수지만 그냥 좋아한다.(웃음) 커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가 되고 싶다”라고 각오를 전했다.

2004시즌 - Blue Heart 2004



인천유나이티드가 창단되고 처음으로 K리그에 합류한 시즌이다. 캐치프레이즈는 'Blue Heart 2004'가 사용됐다. 인천이 처음 입었던 홈 유니폼은 파란색과 검은색이 들어가 있지만, 인천 특유의 파검(파랑+검정) 줄무늬가 있진 않았다.

2006시즌 - 시민속으로, Into the Community



구단의 행사 및 사업 등을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펼쳐 시민 구단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캐치프레이즈를 채택했다. 유니폼은 파검 줄무늬가 유지되면서도 오른쪽 어깨에 검정 선이 추가됐다.

2005시즌 - 푸른물결 2005



당시 사용됐던 캐치프레이즈는 '푸른 물결 2005'로 문학경기장에 인천 유니폼을 입은 팬들이 가득 차 축구 문화의 푸른 물결을 일으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05시즌부터 인천의 파검 유니폼이 시작됐다. 인천은 해당 유니폼을 입고 K리그 정규리그 1위를 차지했다.

2007시즌 - My Pride My United



캐치프레이즈는 2006시즌 경영 흑자를 달성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인천이 시즌 최다 관중 유치로 프로축구 최고 인기 구단으로 자리 잡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유니폼은 직전 시즌보다 깔끔한 디자인을 채택했다.

2008시즌 - My pride My United



이전 시즌과 같은 캐치프레이즈가 사용됐지만, 유니폼엔 변화가 있었다. 2008시즌 유니폼은 이전 유니폼보다 줄무늬의 개수가 많아지고 두께가 얇아졌다.

2011시즌 - Change & Challenge



캐치프레이즈 'Change & Challenge'는 변화와 도전으로 명실상부한 시민 구단으로 자리매김하고 K리그 최고의 구단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유니폼 목 뒷부분에 'Adieu Munhak(이두 문학)이라는 글귀가 새겨졌다. 문학경기장을 떠나는 것을 기념했다.

2013시즌 - 인천축구지대본



캐치프레이즈 '인천축구지대본'은 인천이 세상 축구의 중심이라는 뜻이다. 구단 창단 10주년에 맞춰서 팬들을 대상으로 유니폼 공모전을 개최했고, 다양한 심사에 걸쳐 유니폼이 공개됐다. 창단 10주년을 기념해서 줄무늬가 10개의 선으로 표현하고, 기념 엠블럼을 삽입했다.

2015시즌 - Play Together



'Play Together'는 팬과 선수, 인천시와 구단이 함께 된다는 의미를 내포한 캐치프레이즈다. 홈 유니폼은 인천의 한자 '인'의 3획 구조를 따서 파란색을 3가지 색상으로 나눠 변화하는 인천, 세계로 나아가는 동북아 중심 항구도시 인천 이미지를 담았다. FA컵 준우승을 기록했다.

2009/10시즌 - My Pride My United



2009시즌 또한 캐치프레이즈 'My Pride My United'가 채택됐다. 이전 유니폼과 다르게 팔 부분이 완전히 검정색으로 덮였다. 해당 캐치프레이즈와 유니폼은 2010시즌까지 유지됐다.

2012시즌 - Into the New ERA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입성과 함께 새 시대를 맞이한다는 의미에서 해당 캐치프레이즈를 선택했다. 유니폼은 다소 논란이 있었는데, 인천의 상징인 파랑 줄무늬가 빠지고 빨간색이 들어갔다. 인천 팬들이 선호하지 않는 유니폼 중 하나.

2014시즌 - 승리, 그 이상의 감동!



'매 경기마다 인천시민과 팬들에게 승리 이상의 감동을 전하겠다'라는 의미로 캐치프레이즈가 만들어졌다. 유니폼엔 특별한 디자인보다는 인천 특유의 줄무늬가 심플하게 구현됐다.

2016시즌 - 우리는 인천



'우리는 인천'이라는 짧고 강렬한 캐치프레이즈를 선택했다. 홈 유니폼은 파란색을 유지하면서 인천의 정체성을 살렸다. 줄무늬의 굵기를 다양하게 조합해 변화를 시도했다.

2017시즌 - 우리는 인천



'우리는 인천' 캐치프레이즈가 다시 사용됐다. 홈 유니폼은 인천다운 파랑 줄무늬가 들어갔다. 다른 유니폼에 비해 클래식하고 깔끔한 느낌을 강조했다.

2019시즌 - 2019 인천축구시대



2019시즌부터 2022시즌까지 인천축구시대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사용됐다. 'STRIPE FOR ALL'이라는 이름이 붙은 유니폼은 인천 시민을 비롯한 모든 팬의 간절한 목소리가 모여 승리를 향한 커다란 하나의 함성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2021시즌 - 2021 인천축구시대



2021 유니폼은 'Fortissimo'다. Fortissimo는 이탈리아어로 '더 강하게'라는 뜻으로 2021 시즌 K리그에서 더 강한 모습으로 나타난 인천의 각오와 열정을 표현했다. 홈 유니폼은 인천광역시 시화인 정미의 가시를 형상화해 디자인한 것이 특징이다.

2023시즌 - 한계를 돌파하라! (Break Through the Limits!)



구단 사상 최초로 AFC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는 인천은 '한계를 돌파하라!'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창단 20주년 시즌을 맞이했다. 창단 20주년인 만큼 유니폼도 특별하게 준비됐다.

2018시즌 - 우리는 인천



'우리는 인천' 캐치프레이즈가 마지막으로 사용된 시즌. 유니폼은 'The Anchor of CLASSIC'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됐다. 창단 15주년을 기념해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장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표현했다.

2020시즌 - 2020 인천축구시대



해양 도시 인천에 걸맞은 바다 물결 문양의 엠보싱이 돋보이는 'FIRST HERO'는 2020시즌 유니폼으로 채택됐다. 원정 유니폼은 흰색과 회색으로 구성된 줄무늬로 선수와 팬 모두가 희망차고 간결한 출발을 기원하도록 디자인됐다.

2022시즌 - 2022 인천축구시대



2022시즌 유니폼 'TRINITY'는 삼위일체라는 뜻으로 구단과 인천, 팬 모두가 하나 되는 공간인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을 표현했다. 유니폼 상의 뒷면에는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을 형상화한 디자인이 자주 처리돼 개장 10주년을 기념했다.

20주년 기념 유니폼 'Checkmate(체크메이트)'는 패권을 위협한다는 뜻처럼 리그를 위협하는 전력으로 거듭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싶다는 인천의 의지가 담겨있다.

20주년 기념 유니폼 체크메이트의 기본 디자인 패턴은 체스판을 형상화한 것으로 20년 동안 체스판 같은 승부의 세계 속에서 인천유나이티드가 만든 역사와 히로여력의 순간들과 승부의 세계를 상징한다. 또한 상의 뒷면에는 구단 창단 연도인 '2003', 창단 20주년인 '2023' 숫자 자수와 함께 '20 YEARS' 자수가 새겨져 있다.

홈 유니폼은 구단 고유의 색인 파랑검정색 구단 최초로 황금빛 컬러로 조화를 이뤘고, 원정 유니폼은 구단 역대 원정 유니폼의 전통색인 흰색이 아닌 은색을 택하며 구단 20주년을 특별하게 기념했다.



인천 수비의 새 믿음맨 권한진, 후반기에는 리그 최소 실점이 목표

글 = 박범근 UTD기자(keu0617@naver.com)



날씨가 더워지고 있다. 경기 사이 휴식 시간도 짧아졌다. 한 경기, 한 경기에 쏟는 에너지가 증가하고 있다. 선수들의 체력 부담이 늘어나는 이 시기에 로테이션은 필수가 되었다. 체력 관리를 위해 꾸준히 선발로 나서던 선수들이 하나둘 벤치에서 경기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것과 거리가 먼 선수가 있다. 인천유나이티드 수비의 새로운 믿음맨 권한진이 그 주인공이다. 주말-주중, 낮-저녁 경기 상관없이 인천 스리백의 중심을 지키는 권한진과 UTD 기자단이 이야기를 나눴다.



최근 경기 많이 뛰고 있지만, 체력 문제없다

권한진과 인터뷰는 6월 A매치 휴식기 때였다. 후반기 일정을 앞두고 선수와 팀 모두 재정비에 들어간 시기였다. 권한진은 "

그동안 경기 수가 많았다. 계속 경기에만 집중해야 했다. 6월 휴식기 때는 우리가 미흡했던 부분들을 보완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았다"라고 휴식기 근황을 전했다.

이어 권한진은 "부천FC와 연습경기도 했다. 여러 가지 시도해보면서 변화해 가는 과정이다. 다양한 전술을 시도하고 있다. 이번 연습경기에서는 그동안 부족했던 전방 압박을 특히 강조했었다. 좋은 점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점도 있었다. 연습경기를 토대로 분석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반기 준비 과정도 함께 이야기했다.

날씨는 점점 더워지고, 주중 경기는 시즌 초반보다 늘어났다. 선수들의 체력 부담이 극에 다다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권한진은 매 경기 선발로 나서고 있다. 권한진은 "최근 경기를 많이 뛰는 것은 사실이다. 적은 나이가 아니어서 회복에

가장 중점을 두고 관리하고 있다. 다행히 지금은 체력적으로 문제없다. 경기를 뛰는 것에 감사하기 때문에 최대한 몸 관리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자신의 몸 상태를 설명했다.

인천은 최근 패배가 줄었다. 다만 승리보다는 무승부가 훨씬 더 많다. 권한진은 "이길 수 있는 경기를 잡지 못해 아쉽다. 그래도 시즌 초반 안 좋았던 시기와 비교하면 경기력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단계다. 결과를 내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더 노력해야 한다"라고 무승부가 많은 점에 아쉬워했다.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전원이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

인천은 힘든 5, 6월을 보냈다. 특히, 5월 중

순에는 조성환 감독이 성적부진 해결을 위해 팬 간담회를 자청하기도 했다. 권한진도 여기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권한진은 "지금 팀 상황도, 5월 간담회도 감독님만이 아니라 모든 선수단의 책임이다. 팀 전원이 지금 상황에 책임이 있다"라고 죄송한 감정을 표현했다.

하지만 권한진은 동시에 희망도 전했다. 권한진은 "현재 팀 내 분위기는 좋다. 감독님, 코치님, 선수, 구단 사무국까지 사이가 돈독하다. 다만 결과가 안 나와서 위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모두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감독님, 코치님들도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거의 없으시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면서 경기를 준비하고 계신다. 선수들도 주장 (오)반석이나 부주장 (이)명주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어린 선수들도 형들 잘 따라와 주고 있다.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라고 부진 탈출 의지를 이야기했다.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인천은 새로운 전술을 시도하고 있다. 그중 가장 큰 효과를 낸 것이 미드필더를 2명에서 3명으로 늘린 3-5-2 포메이션 도입이었다. 센터백으로서 기존 전술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물었다. 권한진은 "상대 팀이나 우리 전략에 따라 포메이션과 전술이 바뀐다. 공을 잘차는 선수들이 팀에 많아서 미드필더가 3명 있을 때는 아무래도 공 소유 시간이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다. 어떤 전술을 사용하든 다 팀이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수행하려고 한다"라고 새 전술을 설명했다.

올해 인천에 합류한 권한진은 영혼의 파트너 오반석과 오랜만에 한 팀에서 호흡을 맞추게 되었다. 권한진은 "(오)반석이는 어렸을 때부터 봐온 아주 친한 친구다. 서로의 스타일, 성향을 잘 알고 있다. 반석이를 하도 많이 봐서 어떤 플레이를 할지 예상이 된다. 서로의 단점을 커버하고, 장점을 살려줄 수 있다"라고 오반석과의 함께 뛰는 것에 즐거워했다.

권한진은 인천에서 주로 스리백의 중앙 센터백을 맡고 있다. 양 측면 센터백과의 호

흡이 중요한 위치다. 권한진은 "우리 팀 센터백들은 각자 조금씩 성향이 다르다. 상대와 체력에 따라 수비 조합이 바뀐다. 누가 뛰어도 경기력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건강한 경쟁 구도다. 공격적인 목표는 실점하지 않는 것이다. 실점을 줄여가려고 수비진 전체가 노력하고 있다"라고 인천 센터백진의 노력을 전했다.

권한진은 수비수지만 득점에도 일가견이 있다. 권한진은 5월 20일 14라운드 광주 FC전에서 0-1로 끌려가던 후반 36분, 호쾌한 원발 하프 발리 슈트로 인천 데뷔골을 터뜨렸다. 권한진은 "수비수라 슈팅 연습을 많이 하지는 않는다. 그래도 어렸을 때는 공격수로 뛰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지 슈팅이 재미있다. 광주 전 골도 예전부터 즐겨하던 슈팅이었다. 임팩트만 정확하게 하자는 생각으로 슈팅했다. 차는 순간 골을 직감했다. 어린 시절에 생긴 본능이 그 상황에 발휘된 것 같다"라고 데뷔골 소감을 이야기했다.



후반기에는 리그 최소 실점이 목표

권한진이 인천에 온 지 반 년이 지났다. 권한진은 인천에서의 6개월을 돌아봤다. 권한진은 "입단 인터뷰에서 말씀드렸듯이,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 문화가 있는 인천에 와서 설레고 기쁘다. 아직 나를 잘 모르는 팬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분들께 인정받자는 생각으로 인천에 왔다. 지금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인천 생활에 기뻐했다.

권한진은 인천에서 등번호 55번을 달고 있다. 축구에서 55번은 흔하게 쓰는 번호가 아니기에 권한진이 이 등번호를 선택한 이유를 궁금해하는 팬들이 많았다. 권한진은 "어렸을 때부터 5번을 좋아해서 제주, 대전에서도 5번을 달았다. 인천에서도 5번을 하고 싶었는데, 이명주라는 슈퍼스타가 있어서 (이)명주 번호는 차마 건드리지 못하고 그나마 비슷한 55번을 선택했다. 5가 두 개니까 더 잘할 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골랐다"라고 등번호 55번의 배경을 설명했다.

권한진의 인천 입단 영상에서 인천 전담수 대표이사는 권한진에게 어린 선수들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었다. 권한진은 "인천이 다른 팀보다 고참 선수가 많다. 나와 동갑인 88년생 선수가 4명이나 있다. 오반석, 신진호, 김준엽 모두 선배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다. 부주장 명주도 그렇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권한진은 "나는 그 친구들과 다른 스타일로 팀과 어린 선수들에 도움을 주고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어린 선수들에게 내가 도움되는지는 모르겠다. 내 실력이 어린 친구들보다 좋은 것도 아니다. 그래도 경험은 후배들보다 많아서 경기장 안팎으로 조언을 많이 해주고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를 많이 이야기한다. 다른 선수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말했다.

어느덧 2023시즌이 절반가량 지났다. 권한진에게 남은 반 시즌 목표를 물었다. 권한진은 "시즌이 절반 정도 남았다. 처음부터 우리가 목표로 한 K리그 파이널A와 AFC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이루고 싶다. 아직 그 목표에 변화가 없다. 올해 FA컵에서 우승컵을 들고 싶다. 팀 모두가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모든 목표를 이루고 싶다. 개인적으로는 리그 최소 실점 달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 하반기에는 실점을 최소화하는 데에 보탬이 되고 싶다"라고 남은 시즌 목표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권한진은 "팀 성적이 팬분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 죄송하다. 선수들도 여기에 굉장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팀 전원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분위기를 반전시켜서 첫 경기부터 승리로 7월을 시작하고 싶다. 팬분들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다할 것이다. 시즌 마지막에는 팀이 좋은 위치에 올라서도록 하겠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라고 팬들에게 메시지를 남기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세계무대 경험하고 돌아온 박현빈, 이제 파검의 피치에 설 시간

글 = 성의주 UTD기자 (sung.euju.shin@gmail.com)

코로나19 여파로 한 차례 취소되고 4년 만에 열린 2023 FIFA U-20 월드컵은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됐다. 12시간이라는 시차를 가진 만큼 극악의 경기 시간이었지만 인천 팬들이 뜬 눈을 지새우며 경기를 봤던 이유가 있다. 바로 박현빈 때문이다. U-20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를 경험하고 돌아온 그를 UTD기자단에서 만났다.



나라와 팀을 대표해서 나간 자리, 스스로를 증명하다

U-20 월드컵은 전 세계의 유망주가 한곳에 모이는 자리다. 유망주로서 설 수 있는 가장 큰 대회인 만큼 경기를 땀 기회조차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 박현빈은 김은중 감독이 U-20 대표팀을 맡은 후 꾸준히 소집되며 태극마크를 단 끝에 이번 U-20 월드컵 최종명단에도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해당 연령대 최고의 유망주 중 한 명임을 증명했다. 조별리그 3경기부터 마지막 3, 4위전까지 U-20 대표팀이 이번 대회에서 치른 7경기 중 박현빈은 5경기에 출전했다. 그중 3번은 선발로 나섰다.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중원을 책임진 박현빈은 U-20 대표팀이 준결승 진출 패를 이루는 데 있어서 큰 몫을 했다.

큰 무대를 경험하고 돌아온 박현빈은 “나라를 대표해서 나가는 대회이기도 하지만, 인천이라는 팀을 대표해서 나간 대회라고도 생각한다. 그 자체로 매우 큰 영광이다. 하지만 팀을 대표한다는 것이 부담되기도 했고 워낙 큰 대회다 보니 긴장도 되긴 했는데, 부담은 가지지 않으려는 마음보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기본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는 생각으로 대회에 임했던 것 같다. 좋은 결과까지 따라와서 기쁘다”며 대회를 마친 소감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U-20 월드컵은 2019년에 열렸던 직전 대회와 비교해 다소 관심이 떨어졌던 것이 사실이었다. 스타 플레이어의 부재가 원인 중 하나로 꼽혔고, 일부에서는 기대를 받지 못하는 이번 U-20 대표팀을 ‘골짜기 세대’라고 부르기도 했다. 박현빈은 “동료들과도 관련된 많이 이야기했다. 스타 플레이어가 없다는 점에 대해 부정할 생각은 없지만, 골짜기 세대는 건 잘 모르겠다”며 솔직한 심정을 밝혔다. 이어 그는 “직전 대회보다 처음에는 응원이나 관심이 적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경기를 치르면서 점점 많은 응원을 받았고 그게 정말 큰 힘이 됐다. 체력적으로도, 더운 날씨 때문에도 힘들었지만 응원이 점점 커지는 걸 보며 더 힘을 낼 수 있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U-20 대표팀이 본격적인 응원을 받기 시작한 경기는 예선 1차전, 프랑스와의 경기였다. 강팀 프랑스를 꺾었다는 소식에 많은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다. 박현빈도 이 경기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첫 경기 상대가 프랑스라 동료들과 격정을 많이 했다. 하지만 그 경기에서 이기고 나니 오히려 자신감에 가득 차게 되더라. 하면 된다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됐다. 이번 대회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이후에는 즐기자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승부를 걸었던 16강에서 좋은 결과를 거뒀고, 준결승까지 갈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박현빈은 U-20 월드컵에 출전하며 가장 좋았던 점을 ‘과장’이라고 말했다. “4등이라는 결과가 아쉽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었다. 제 역할을 열심히, 잘 수행하려고 노력했고 그만큼 보여주려고 노력했던 그 과정이 가장 큰 수확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아쉬운 점에 대해 박현빈은 “모두 아쉬웠지만, 준결승에서 후반 막판 집중력

부족으로 인해 위험한 위치에서 파울을 내줬다. 그게 실점의 빌미가 된 것 같아서 가장 아쉽다”고 밝혔다. 그는 “그 파울 때문에 당시에는 정말 힘들었다. 동료들한테도 많이 미안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지금은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중이다. 솔직히 전 세계에서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어디 있겠나.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다”며 웃었다.

이번 대회는 인천 팬들에게도 의미가 깊었다. 박현빈의 플레이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기회였기 때문이다. 2년 차 K리그 박현빈의 리그 출전 기록은 단 한 경기, 그것도 44분이 전부였다. 하지만 이번 U-20 월드컵에서는 달랐다. 많은 기회를 얻은 박현빈은 자신의 플레이를 마음껏 보여주었다. 적극적인 수비부터 득점의 기점이 되는 공격 전개까지 여러 방면에서의 활약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현빈은 “예선까지는 체력적인 측면이나 경기 운영 측면에서 몸과 경기력이 많이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였다. 최대한 많이 뛰어서 체력과 경기력을 끌어올리려고 했는데, 16강전에서 선발로 뛰게 되면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기쁘다. 반대 전환이나 투쟁심 있고 강하게 싸워주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기운영적인 측면이나 공격적인 패스를 많이 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 포지션 상 도전적인 패스보다는 조금 더 안전한 축구를 추구했던 것 같다. 인천에서는 좀 더 공격적이고 주도적인 패스를 보여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큰 대회였던 만큼 배운 것도 많다. 박현빈은 “경기장 안에서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과 필요한 상황에서 영리하게 파울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깨달음도 얻었다. 그리고 개인

적으로도, 대한민국이라는 팀으로도 세계 무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자신감을 얻은 게 큰 수확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도 알게 됐다. 아쉬움은 있을 수 있어도 후회는 없이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 인천에서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뛰고 싶다”며 각오를 밝혔다.



다시 파검의 전사로, 소속팀에서 보낼 시간

이제 소속팀의 시간이다. 태극마크를 달았던 U-20 대표팀 선수들은 소속팀으로 돌아가 팀의 승리를 위해 싸워야 한다. 박현빈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 전에 싸워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경기 출전을 위한 경쟁이다. 박현빈은 올 시즌 인천에서의 출전 기록이 없다. 박현빈과 동일 포지션에는 경험 많고 실력 있는 미드필더들이 즐비하다.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박현빈에게는 기회가 찾아오기 힘든 것이 현실이었다.

그는 “대표팀도 정말 중요하고 행복한 자리지만, 현재로서는 팀에서 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팀에서 경기를 많이 뛰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크다. 무엇보다 팀에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다”며 의욕을 보였다. 박현빈은 “하지만 내가 경기를 뛰는 것과 관계없이 사실 지금은 팀이 높은 순위권으로 올라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출전 기회가 생긴다면 투쟁심 있게 싸워주고, 많은 활동량과 스루패스를 넣어주는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실점하지 않도록 수비도 열심히 하고 싶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은 좋은 미드필더진을 가지고 있다. 이제 프로 2년차인 박현빈에게는 버거울 정도로 능력 있는 경쟁자들이다. 하지만 그는 태연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인천에는 K리그를 통틀어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좋은 미드필더들이 많다. 형들이 필드에서 정말 잘해주고 있는 만큼 나에게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지만, 프로의 세계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형들도 나와 같은 시절을 다 겪어온 것을 알기 때문에 잘 이겨내면 잘 될 거라고 믿는다. 형들을 따라잡고 넘어

서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독부터 팬들까지, 박현빈을 나아가게 하는 인천의 사람들

소속팀에서는 경쟁자인 선배들이지만 동시에 팀 동료이기도 하다. 또한, 축구 인생에서의 선배이기도 하다. 그들은 모두 박현빈의 조연자가 되어주었다. 박현빈은 “U-20 월드컵을 치르면서도 형들에게 조언을 정말 많이 구했다. 많은 형들에게 조언을 구했지만, 그중에서도 여름 형과 (김)대중 형이 떠오른다. 경기가 끝나고 이런저런 고민을 말하면 여름 형은 진지하게 조언을 해줬고, (김)대중 형은 좀 더 장난기 넘치게 조언을 해줬다. 덕분에 정말 힘이 많이 됐다. 형들의 이야기를 듣고 좀 더 자신감도 찾으면서 대회를 치를 수 있었다”고 밝혔다.

힘이 되어준 것은 동료뿐이 아니었다. 조성환 감독 역시 직접 박현빈에게 연락을 해 응원을 건넸다고 밝혔다. 박현빈은 “프랑스전이 끝나고 감독님께 전화가 왔다. 엄청 고생했다고, 큰일을 했었다고 말해주셨는데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기분이 좋았다. 큰 응원을 받은 기분이었다. 귀국 후에도 연락을 드렸더니 감독님께서 정말 고생했다고 하시면서 휴가를 일주일이나 주셨다. 그 정도로 받을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생각보다 여유를 주셔서 과분했다. 덕분에 가족들과도 좋은 시간을 보냈다. 감독님께서는 다치지 않고 할 일을 잘하고 온 것만으로도 좋다고 말씀해주시면서 축하한다는 말을 정말 많이 해주셨다”고 밝혔다.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한 명 더 있다. 같은 인천 소속이자, U-20 대표팀 동료인 동갑내기 박승호가 그 주인공이다. 사소한 일로 자주 싸우기도 하지만 그만큼 쉽게 풀려질 정도로 ‘찐친’인 두 사람은 소속팀과 대표팀을 오가며 돈독한 우정을 쌓았다. 박현빈은 “작년에도 계속 U-20 대표팀을 다녀왔지만, (박)승호와 올해부터 함께 다니니 더욱 좋았다. 팀을 대표한다는 부담감이나 책임감도 조금 덜 수 있었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가까운 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 마음이 더 편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박)승호와 정말 많이 얘기했던 것 중 하나가 무슨 일

이 있어도 U-20 월드컵을 꼭 같이 나가자는 거였다. 맹세처럼 약속을 했었는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박)승호가 U-20 월드컵 최종 명단에 들었을 때 누구보다 기뻐했다”고 밝혔다.

박승호는 예선 2차전에서 득점까지 만들어내며 좋은 활약을 펼쳤으나 경기 중 큰 부상을 당하며 한국으로 먼저 귀국하게 됐다. 박현빈은 박승호의 공백 이후에도 꾸준히 그의 유니폼을 들며 끈끈한 우정을 보여줬다. 박현빈은 “(박)승호의 부상 이후 나도 정말 아쉽고 속상했다. 하지만 위로보다는 장난을 더 많이 쳤던 것 같다. 정말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자칫 더 우울해질 수도 있는 위로보다는 기분을 더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았다. (박)승호가 잘 이겨낼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 (박)승호도 유니폼을 꼭 들고 있으라며 잔소리도 하고, 우스갯소리도 하면서 맞받아쳤다”며 웃었다.

마지막으로 인천 팬들에게 한 마디를 부탁했다. 박현빈은 무엇보다 큰 감사를 표했다. 그는 “이번에 다시 한번 느낀 건 인천 팬 중에 좋은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것이다. 경기를 뛰면서 잘한 점도 있었지만, 아쉬운 부분이 나 못한 점도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SNS 메시지로 응원을 정말 많이 해주셨다. 사실 늦은 시간에 경기를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그런 연락을 받고 정말 크게 감동했다. 특히 준결승에서 내 실수로 인해 아쉬운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가 떠오른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많이 우울했다. 그런데 경기 이후 SNS를 봤더니 메시지가 100개는 와 있더라. 열어보니 90%가 인천 팬들이 응원해주시는 연락이었다. 그 응원을 다 보면서 엄청나게 감동을 했고,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를 정도였다. 이 기회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마음을 표했다.

자신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스스로, 그것도 세계 무대에서 증명한 박현빈은 이제 파검의 유니폼을 입고 다시 피치로 나선다. U-20 월드컵으로 한 뼘 더 성장한 박현빈이지만, 그를 성장시키는 것에는 인천의 모든 구성원의 응원과 격려도 있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성장 중이다. 그가 더 나아가고 올라갈 모든 순간을 기대해본다.

IUFC BLUE MARKET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을 찾아주신 팬 여러분이
더욱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더 넓은 공간으로 이전 및 리뉴얼 오픈하였습니다!



블루마켓 매장 위치

인천축구전용경기장 GATE-WG7 옆
기존 블루마켓 2층 (구 스카이라운지)

※기존 블루마켓 입구로 입장 후 내부 계단을 통해 2층 블루마켓으로 이동

운영 시간

경기 시작 2시간 30분 전 ~ 경기 종료 후 30분

※경기 중에는 매장 재정비를 위해 운영하지 않습니다. (하프타임 매장 이용 가능)

www.incheonutdmarket.com

온라인 블루마켓은 365일 OPEN

 @incheonutdmarket

 @IUFC 블루마켓



2023시즌 인천유나이티드
직관의 감동을 계속 느끼고 싶다면?

지금 인천유나이티드
공식 유튜브 / 카카오TV / 네이버TV
채널을 구독하세요!

인천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YouTube



 kakao tv



 NAVER TV